

보도시점 2026. 9. 30.(수) 06:00
2026. 9. 30.(수) 석간

배포 2026. 9. 29.(화) 14:00

농식품부, 지능형 농기계 산업 도약을 위한 실증 기반 구축 본격화

- 정부, 농기계 대규모 실증 인프라 지원으로 국산 농기계의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9일(화) 김제시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개발 중인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제 영농 환경에서 시험하기 위한 시설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066억 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100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실증단지에는 실증포장, 주행시험로 등 농기계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구축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농기계 개발 단계부터 현장 실증, 성능 개선과 검·인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중가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호구조물 의무 설치 기준 확대(4종→6종), 야간반사판 설치 기준 강화 등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농기계 공유센터 15개소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총 1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옥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인 우리 농기계 기업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농기계 관련 정책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총자과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1891)
		담당자	사무관	우현경 (044-201-1896)

